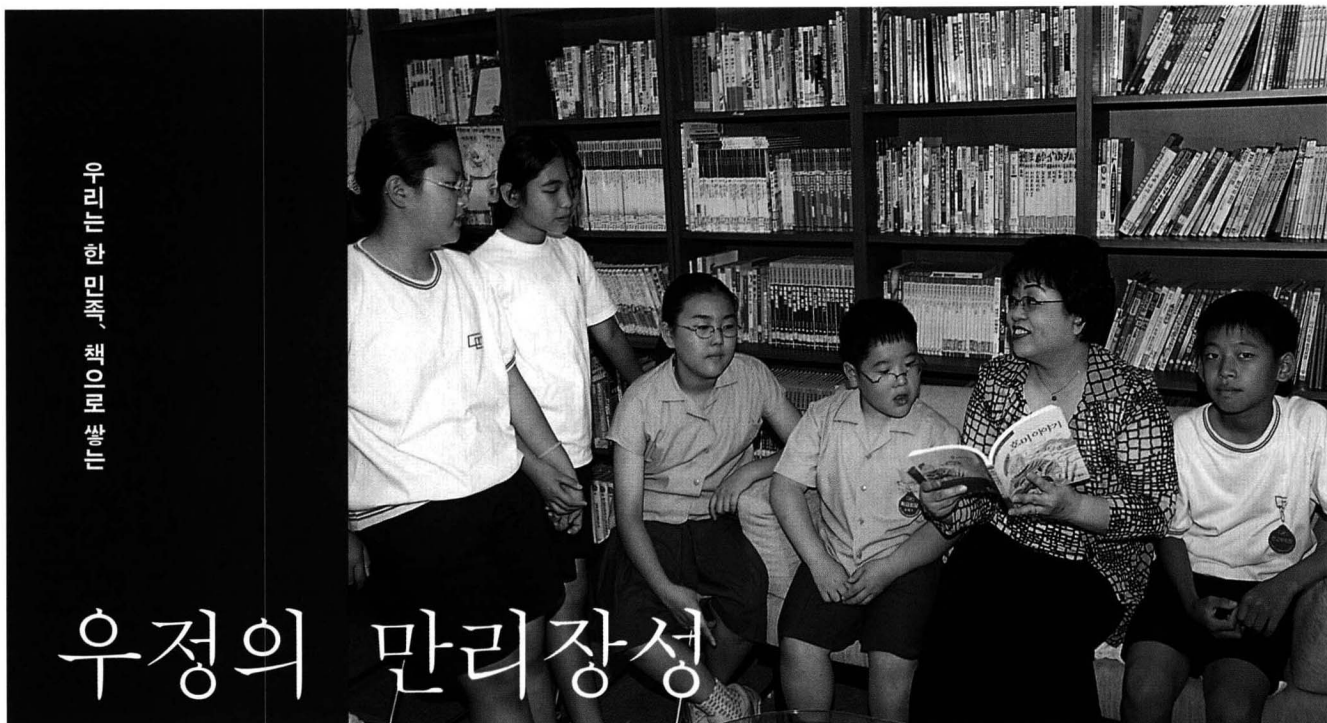


책을 통해 소중한 우정을 쌓아가는 어린이들이 있다. 중국 천진에 있는 셋별조선족 소학교(교장 유진숙) 학생들과 글짓기 공부를 위해 사설학원(서울시 마포구 소재 '글사랑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왼쪽부터 김이경, 선호지, 진다슬, 박형우, 이경혜 원장, 김우현

## 우정의 만리장성

'글사랑학원' 아이들이 조선족 학생들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것은 지난 2001년이다. 이경혜 원장은 중국 천진天津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조선족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전해 들었고, 이 이야기는 곧 학원 아이들 귀에 들어 갔다. 독지가가 세운 학교는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58명뿐이었고, 컴퓨터 보급률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아직도 주판으로 수학공부를 하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친구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어서 책을 잘 안 읽거든요. 있으면서도 안 보는 우리들이 부끄러웠고 교과서도 없이 공부한다는 천진 친구들 얘기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홍익대 부속 초등학교 김이경(6년)양은 안타까운 마음에 4학년 때부터 집에 있는 책을 한권 두권 학원으로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처럼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학원에 올 때마다 조선족 친구들에게 줄 우리말로 된 책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서일전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쪽 제품이 중국에 나갈 때 컨테이너 안에 같이 넣어서 보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 사이 벌써 시간이 흘러서 4학년이었던 아이들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열 번 정도 모아 보낸 책은 현재까지 2000권이 넘는다. 그사이 천진 학교에는 도서실이 생겼고 아이들은 펜팔을 통해 우정을 쌓아갔다. 우표 값도 없는 가난한 천진 아이들이 책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편지로 전한 것이었다. 홍익

대부속 초등학교에 다니는 선호지(6년) 양은 "글씨도 비뚤비뚤하고, 무슨 말인지 안 통하는 편지였지만 편지가 와서 정말 반가웠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셋별조선족소학교 어린이들은 여느 조선족 아이들처럼 자신이 조선족임을 포기하며 살아간다.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 스스로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보는 책은 80퍼센트가 중국어로 되어 있고, 북한교과서를 보며 공부를 하니 한국어가 서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경혜 원장은 유진숙 교장과 11명의 선생님들이 봉사 수준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말 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3세대가 되는 조선족 아이들은 스스로 조선족임을 거부하면서 중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 중 하나가 조국인 서울을 구경하는 겁니다."

이경혜 원장은 책 보내는 일은 일시적 운동으로 그칠 수 없다면서 독지가들이나 출판사들이 책 보내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랐다. "아이들끼리는 말이 안 통해도 느낌으로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거든요. 조선족 아이들이 우리말로 된 책을 읽으면서 여기 친구들의 따뜻함을 느끼고 자신 삶의 뿌리를 찾으면 합니다." **이경혜**

김청연 기자